순금메달 전달하는 배동현 선수단장

등록 2024.09.10 19:00:34

[인천공항=뉴시스] 정병혁 기자 = 배동현 선수단장이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2024 파리패럴림픽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해단식에서 선수 대표인 트라이애슬론 김황태와, 보치아 임광택 감독에게 순금 메달을 전달하고 있다. 2024.09.10. jhope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